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ingle Life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 수 장 현 숙**

Korea Nazarene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Studies

Assistant Professor : Chang, Hyun-Soo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a single life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ersonality &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 social & behavioral characteristics, marriage, happiness, and sex of singles. The sample consisted of 160 single male and female aged 30 to 49.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ed that the singles tended to be self-centered, especially when they did not have a plan to get married, and that most of the singles in the 30s wanted to have a friend of the other sex. In the view of marriage, young, male singles were more likely to form a family than old, female singles. Also, female singles, bereaved or divorced, were shown to have fear about marriag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marriage more than male, never-married singles did. Regarding the extent of happiness, old, female (rather than young, male) singles tended to be more satisfied with a single life. Besides, old, religious singles were less likely to feel lonely than young, unreligious singles.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college-graduated singles had rather liberal view on sex although singles generally showed rather conservative toward sex in this study. Therefore, the findings reveal that singles were self-centered, social, positive view on marriage, somewhat happy of a single life, and having a conservative attitude about sex. Further understanding of a single life in modern society is needed in future studies.

▲ 주요어(key words) : 독신(a single life), 심리적 성향(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성(sex), 결혼(marriage), 자유(freedom)

1. 들어가는 말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2001)에 따르면, 2000년 11월 1일 현재 '나 홀로' 사는 독신 가구(1인 가구)는 2백 22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4%를 차지하여, 2세대(부모+자식) 가구에 이어 두 번째 순위로 집계됐다. 이 중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현대 생활로 인해 별거하는 가족을 제외한 195만 5천 가구(87.9%)가 미혼·사별·이혼으로 인한 독신가구이다. 또한 고학력 독신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학 졸업(전

문대 포함) 이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1995년 32만 9천 가구에서 2000년 55만 7천 가구로 70% 가까이 늘었다(중앙일보, 2001. 10. 16). 이처럼 '독신'이 삶의 한 방편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매스컴에서는 부부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핵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이른바 '싱글족'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싱글족'은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주의자와는 달리,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독신을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아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별종'이고 '비주류'처럼 생각되기도 한다(굿데이, 2002. 3. 10). 이는 우리 사회가 너무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비와 나사렛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주저자 : 장현숙 (hyunsook@kornu.ac.kr)

나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혼자 사는 독신의 형태를 일종의 이탈된 생활양식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신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발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제적 자립, 자의식 확대, 이혼 증가 등이 이유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복잡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현대 생활에서 점점 “나”라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정보다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보다 개인의 행복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홀로가 좋다’(주간조선, 2002. 1. 10)는 개인주의적, 편리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사고(의식)에서 비롯한 새로운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新가족풍속도라 할 수 있는 ‘독신’을 두고 ‘자유를 택한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 데는 독신의 가장 큰 매력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인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뜻한다. 독신들에게 자유는 곧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독신이 누리는 자유에는 외로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정해진 틀과 순서에 따라 자신의 삶이 끼워 맞춰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주변의 눈이나 나이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결혼은 사양한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것이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과의 관계(특히 감정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를 위한 통로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독신들의 ‘자유’의 실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본 연구에서는 30·40대 독신의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독신의 자유로움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혼자 사는 독신들의 전반적인 심리 성향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해보고, 현대인의 선택적인 삶의 한 방식인 독신가구의 형태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독신의 심리적 성향

‘독신(獨身)’은 통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혼자 몸’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주 대상은 역시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이다.

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인적 성향을 지니게 될 때 독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 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단정하는 일이 많다.
- ②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 나갈 자신이 있다.
- ③ 남과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④ 스스로를 능력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⑤ 취미가 많다.

이외에 독립심과 자신감,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을 경우 혼자 사는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다.

독신자 인터넷 사이트(예: dawoori, bestsolo, soloclub, solobay, hope2u, singlelife 등)들은 혼자 사는 독신들이 아직 자신의 반쪽(배우자)을 찾지 못한 매력 없는 사람들로 비쳐지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멋진 독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뚜렷한 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시기가 바로 ‘독신시절’이라는 것이다. 자칫 분방함과 편안함에 젖어 특별한 자극이나 긴장 없이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고립을 즐기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독신은 어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이므로, 나이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신 생활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K씨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가끔은 미칠 듯이 사람들이 그럽고... 때로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조차 귀찮고... 가끔은 꼬마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때로는 꼬마아이들의 투정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사랑 받고 싶고...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고... 가끔은 같이 식사하는 것이 맛있고... 때로는 혼자 라면 끓여먹는 것도 괜찮고... 가끔은 누군가와 여행을 가고 싶고... 때로는 혼자 음악을 들으며 여행가는 것도 괜찮고... ..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좀더 나을 듯 하지만... 나의 ‘자유’를 누가 이해하리오... (2000. 1. 14.)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독신의 성(sex)에 대한 자유와 그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에는 비교적 부정적인 사회의 비판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계속 급증하는 데도 독신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예: “왜 아직 결혼(재혼)하지 않았어?” “아직도 혼자 살아?” 등)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독신이라고 하면 묘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때로 이들을 움츠리게 만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기비하에 빠지게도 한다. 한 예로, ‘어딘지 문제 있다’ ‘이기적이다’ ‘초라하다’ 등은 독신자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편견으로 꼽히기도 하였다(서울 여성의 전화 산하 ‘싱글 여성 모임’ 참고).

독신으로 사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일이 더 재미있어서’, 또는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등등 각기 다를 수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를 ‘독신주의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독신으로 살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다만 독신으로 사는 데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자립심과 경제력,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와 취미 등이 있어야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독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김애순, 1994, 2001).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혼자서 독신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즉 가구상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 30대와 40대의 여성과 남성으로 한정하였다(30세 이상 - 50세 미만의 독신남녀). 독신의 경제적 자립여부나 결혼여부는 상관없으며(미혼, 이혼 혹은 사별의 경우 모두 포함), 단 자녀(또는 부모,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료수집은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연구자를 포함한 6명이 독신자를 찾아 직접 또는 간접적(인편이나 우편 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조사대상자가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독신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배포한 후, 총 160명의 사례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측정도구

혼자 사는 독신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20개의 설문 문항이 작성되었다. 독신의 심리적 측면에서 본 '자유'의 실체를 측정하고자 독신지수(독신으로서 생활할 심리적 경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²⁾과 독신에 관한 최근 관련자료(김애순, 1994, 2001; 김태현·전길양·김양호, 2002; 주간조선, 2002)를 참조하였으며, 또한 독신여성 30대와 40대 각 1명과 독신남성 30대와 40대 각 1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신의 심리 척도는 4점 Likert형 척도로서, 독신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사회적·행동 특성, 결혼관, 행복도, 그리고 성(sex) 등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독신 심리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9이며, 타당도는 6명의 관계된 연구자에 의해 검증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DOW versio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를 조사한 후, 일련의 교차분석(chi-square test)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160명 중 독신여성이 82명(51.2%), 독신남성이 78명(48.8%)으로 비교적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연령은 30대가 123명(76.8%), 40대가 37명(23.2%)으로, 30대의 독신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59.4%가 35세 미만으로 비교적 젊은 독신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평균 연령: 35.2세)³⁾. 학력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92.5%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대졸: 61.9%, 대학원 이상: 30.6%), 고졸은 7.5%(12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고학력 수준의 독신자임을 나타내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160명 중 148명(92.5%)이 미혼인 상태이며, 3명(1.9%)이 사별하였고, 9명(5.6%)이 이혼한 경우였다. 종교는 전체 49.4%가 종교가 없다고 하였으며, 개신교 26.3%, 가톨릭 16.3%, 불교 5.6%, 그리고 기타 2.5%의 순이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150-20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0.8%, 100-150만원 미만이 19.5%, 그리고 200만원 이상이 28.9%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결혼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이며,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가 70.3%,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다'는 18.3%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2. 독신의 일반적 심리 성향

독신가구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혼자 사는 독신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독신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설문 문항(20문항)과 그 응답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혼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독신들이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87.5%)고 생각하며, 약 2/3 정도가 사랑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크고(68.2%), 낙천적인 성향임(67.6%)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신의 71.9%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가

2 인터넷 자료(<http://myhome.netsgo.com/musehelp/심리검사1.htm>)의 '독신지수'에 따르면, 이성부모에 대한 감정, 부모의 결혼생활, 열등감, 지나친 경쟁의식, 자존심, 배우자 기준, 성 문제, 비판적인 인생관, 소외감,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견해, 육아에 대한 두려움, 독신의 자유로움 등 12문항을 통해 독신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다.

3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통계청, 2001)에 따르면, 31-34세 인구 중 독신이 21.3%(미혼: 19.5%, 사별: 0.3%, 이혼: 1.5%)이며, 35-39세의 경우는 독신이 11.4%(미혼: 7.5%, 사별: 0.9%, 이혼: 3.0%), 40-44세는 독신이 10.3%(미혼: 3.8%, 사별: 2.2%, 이혼: 4.3%), 45-49세의 경우는 독신이 10.9%(미혼: 2.1%, 사별: 4.4%, 이혼: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독신의 심리 성향

(N = 160)

변인	문항	빈도(%)	
		그렇다 ^a	그렇지 않다 ^b
1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좋다.	140(87.5)	20(12.5)
2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5(71.9)	45(28.1)
3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40(25.0)	120(75.0)
4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다.	78(48.8)	82(51.3)
5	나는 내가 결혼 상대자로 부적당하다고 여긴다.	22(13.8)	137(86.2)
6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크다.	109(68.2)	51(31.9)
7	혼자 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	37(23.4)	121(76.6)
8	나는 낙천적이다.	108(67.6)	52(32.5)
9	혼자 살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에 민감하다.	48(30.0)	112(70.0)
10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39(24.4)	121(75.6)
11	성적 충동의 해결에 적극적이다.	25(15.8)	133(84.2)
12	혼자 살아서 생활의 만족감이 크다.	64(40.0)	96(60.0)
13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관심도 없는 편이다.	37(23.4)	121(76.6)
14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6(41.3)	94(58.7)
15	나는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	34(21.2)	126(78.8)
16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35(21.9)	125(78.2)
17	성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15 (9.4)	144(90.5)
18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	48(30.2)	110(69.8)
19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예민하다.	37(23.3)	122(76.7)
20	결혼은 자기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	18(11.2)	142(88.7)

a'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b'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수치임.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개인)'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혼자 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는 전체의 23.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성적 충동의 해결에 적극적(15.8%)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적게 나타났다. 독신의 1/4 정도가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25%),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24.4%),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관심이 없는 편(23.4%)이었다. 또한 독신의 1/5 이상 남의 일에 무관심하며(21.2%),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21.9%)고 하였다. 한편, 1/3 정도가 혼자 살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에 민감한 모습(30%)을 나타내었고,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30.2%)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결혼 상대자로 부적당하다고 여기거나(13.8%), 결혼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11.2%)고 생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밖에, 독신의 40%는 혼자 살아서 생활의 만족감이 크지만,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41.3%) 또한 있다고 하였으며, 약 반수 정도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다(48.8%)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독신의 심리 성향 분석: '자유'의 실체

'독신'하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자유'이다. 대체로 독신 남성은 가족 및 자녀의 부양과 가장의 책임으로부터 일단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독신 여성은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

신의 의사대로 생활의 자유를 누리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유'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함." 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함. 마음 내키는 대로 함.",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견 독신의 심리 및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자 사는 독신들의 '자유로움'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독신의 경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독신들의 전반적인 심리 성향을 통하여 독신의 '자유'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독신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사회적·행동 특성, 결혼관, 행복도, 그리고 성(sex) 등과 관련한 심리적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독신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Personality & Emotional Characteristics)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친밀한 애정관계의 발달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이정은·최연실, 2002). 사회의 통념상 일정한 나이의 성인이 되면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의 성격 특성은 어떠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나는 낙천적이다'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3.8%,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3.8%로, 자기 자

<표 2> 독신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문항	구분	결혼 계획 ^a			계	문항	구분	종교 유무 ^b		계
		전혀 없다	있으면 한다	반드시 한다				없다	있다	
자기 자신 중요	그렇다	16 (88.9)	81 (73.0)	16 (55.2)	113 (71.5)	감정 기복 심함	그렇다	26 (32.9)	14 (17.3)	40 (25.0)
	그렇지 않다	2 (11.1)	30 (27.0)	13 (44.8)	45 (28.5)		그렇지 않다	53 (67.1)	67 (82.7)	120 (75.0)
계		18 (11.4)	111 (70.3)	29 (18.4)	158 (100.0)	계		79 (49.4)	81 (50.6)	160 (100.0)

a: $\chi^2 = 6.59, p < .05$;

b: $\chi^2 = 5.21, p < .05$

신이 낙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 독신의 2/3가 넘는 6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나이의 성인이 되면 짝을 만나 결혼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기대와는 달리(2001년 평균 초혼 연령 남: 29.6세, 여: 평균 26.8세)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낙천적인 사람의 경우 실제로 혼자 사는 독신이라고 하여 늙는다는 사실에 민감해 하거나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r = -.26$) 또는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r = -.25$) 없으며,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지($r = -.30$) 않다고 하는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부정적 상관관계($p < .01$)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혼자 사는 독신의 생활 형태(1인 가구)상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0.6%,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51.3%로 독신의 71.9%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독신의 자기중심적 성향은 향후 결혼계획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2>). 즉, 앞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의 88.9%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의 경우 73.0%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다'는 55.2%가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chi^2 = 6.59, p < .05$), 결혼 계획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사람보다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8.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6.9%로서, 전체 3/4에 해당하는 독신의 75%가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 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 즉, 종교가 있는 독신의 경우 17.3%만이 혼자 살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한 반면에, 종교가 없는 독신의 경우는 32.9%가 그렇다고 하여($\chi^2 = 5.21, p < .05$) 신앙을 지니는 것은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과 마음의 지주가 필요하기 때문

(김애순, 1994)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독신자의 성격은 비교적 낙천적인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자기를 중시하는 성향은 향후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는 독신의 경우에서 더욱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교가 있는 경우 보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독신의 사회적·행동 특성(Social & Behavioral Characteristics)

혼자 사는 독신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 특성에서 나타난 심리적 성향을 알기 위하여 이성 친구의 필요성, 타인에 대한 관심 여부,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주변의 시선 의식 등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독신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희망과 주변 시선에 대한 예민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8.1%,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59.4%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신들(87.5%)이 비교적 혼자 지내는 독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이성 친구를 바라는 성향이 강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성 친구에 대한 바램은 특히 독신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표 3>), 40대 독신은 2/3(75.7%) 정도가 이성 친구를 원하는데 비해 30대 독신의 경우 대다수(91.1%)가 이성 친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젊은 층의 독신에서 이성 친구를 원하는 경향이 클 수 있다($\chi^2 = 6.15, p < .05$).

한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예민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7.6%, '그렇다'고 한 경우가 59.1%로서 전체 76.7%의 독신이 혼자 산다고 하여 주변을 의식하거나 예민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신의 1/4(23.3%) 정도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문제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의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독신남성(15.4%)에 비해 독신여성(30.9%)이 혼자 사는 독신생활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표 3> 독신의 사회적·행동 특성

문항	구분	연령 ^a		계	문항	구분	성별 ^b		계	결혼 여부 ^c		비도 (%)
		30대	40대				남	여		미혼	사별·이혼	
이성 친구 희망	그렇다	112 (91.1)	28 (75.7)	140 (87.5)	주변 시선에 예민	그렇다	12 (15.4)	25 (30.9)	37 (23.3)	29 (19.7)	8 (66.7)	37 (23.3)
	그렇지 않다	11 (8.9)	9 (24.3)	20 (12.5)		그렇지 않다	66 (84.6)	56 (69.1)	122 (76.7)	118 (80.3)	4 (33.3)	122 (76.7)
계		123 (76.9)	37 (23.1)	160 (100.0)	계		78 (49.1)	81 (50.9)	159 (100.0)	147 (92.5)	12 (7.5)	159 (100.0)

a: $\chi^2 = 6.15, p < .05$

b: $\chi^2 = 5.33, p < .05$

c: $\chi^2 = 13.69, p \leq .001$

보다 예민하다($\chi^2 = 5.33, p < .05$)고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독신 남성보다 독신여성에 대해 굽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독신여성보다 독신남성을 더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2.5%가 그렇다는 긍정을 보임으로써 더욱 알 수 있다). 또한 미혼의 독신보다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독신의 경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더 예민하다고 응답하고 있어($\chi^2 = 13.69, p \leq .001$), 그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보다 심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결론적으로, 30·40대 독신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 이러한 바램은 40대보다 30대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혼자 사는 독신이라고 하여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크게 예민해하지 않는 사회성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서 독신생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등 개인별, 상황별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독신의 결혼관(Marriage)

혼자 사는 독신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개념과 희망 여부, 배우자에 대한 기준과 결혼 상대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와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결혼과 관련한 독신의 심리 성향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현재 독신이지만

결혼해서 가정(家庭)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크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16.3%,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51.9%로서, 전체 독신의 2/3가 넘는 68.2%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더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3에 가까운 31.9%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우므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현재는 독신이나 향후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희망은 독신의 성별과 연령 및 학력에 따라, 그리고 향후 결혼계획에 따라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4>). 이를테면, 독신여성은 반수에 해당하는 50.0%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다고 한데 반해, 독신남성의 경우에는 대다수(87.2%)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크다고 하여($\chi^2 = 25.45, p < .001$)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개인의 자유생활보다는 가정(家庭)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경우에는 40.5%만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데 반해, 젊은 30대의 경우 3/4이 넘는 76.4%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낸 점을 볼 때($\chi^2 = 16.87, p < .001$), 40대 독신은 결혼(가정)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약하고 30대 독신의 경우는 향후 결혼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졸의 독신(25.0%)보다는 대졸(76.8%) 또는 대학원이상(61.2%)의 독신의 경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더 나타내었는데($\chi^2 = 14.76, p \leq .001$), 본 연구에서 고졸 독신이 전체 대상자의 7.5%(12명)에 불과할 정도로 독신의 학력이 높은 상태이므로 이

<표 4> 독신의 결혼관

문항	구분	성별 ^a		계	연령 ^b		계	학력 ^c			계	결혼 계획 ^d			비도 (%)
		남	여		30대	40대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혀 없다	있으면 한다	반드시 한다	
가정 이루기 희망	그렇다	68 (87.2)	41 (50.0)	109 (68.1)	94 (76.4)	15 (40.5)	51 (31.9)	3 (25.0)	76 (76.8)	30 (61.2)	109 (68.1)	2 (11.1)	77 (69.4)	29 (100.0)	108 (68.4)
	그렇지 않다	10 (12.8)	41 (50.0)	51 (31.9)	29 (23.6)	22 (59.5)	109 (68.1)	9 (75.0)	23 (23.2)	19 (38.8)	51 (31.9)	16 (88.9)	34 (30.6)	0 (0.0)	50 (31.6)
계		78 (48.8)	82 (51.3)	160 (100.0)	123 (76.9)	37 (23.1)	160 (100.0)	12 (7.5)	99 (61.9)	49 (30.6)	160 (100.0)	18 (11.4)	111 (70.3)	29 (18.4)	158 (100.0)

a: $\chi^2 = 25.45, p < .001$

b: $\chi^2 = 16.87, p < .001$

c: $\chi^2 = 14.76, p \leq .001$

d: $\chi^2 = 40.75, p < .001$

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향후 결혼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결혼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 독신의 경우에는 11.1%만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의 경우엔 69.4%,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다'의 경우는 100%가 계속해서 혼자 살기보다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응답을 보여($\chi^2 = 40.75, p < .001$) 결혼계획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희망에 대한 독신의 비교적 일관된 사고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관심도 없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0.9%,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가 55.7%로,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에 있어서는 전체 독신의 3/4이 넘는 76.6%가 없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도는 독신의 연령과 결혼계획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표 5>). 즉, 젊은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40대의 (61.1%)보다 훨씬 높은 81.1%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도를 표명하고 있는데($\chi^2 = 6.22, p < .05$), 이는 40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연령적으로 늦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결혼계획에 대하여 '언젠가 반드시 한다'고 답한 사람은 대다수(89.7%)가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10.3%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비해, '전혀 없다'의 경우는 50.0%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chi^2 = 9.78, p < .01$).

<표 5> 독신의 결혼관 (단위: %)

문항	구분	연령 ^a		계	결혼 계획 ^b			계
		30대	40대		전혀 없다	있으면 한다	반드시 한다	
자녀 양육 무관심	그렇다	23 (18.9)	14 (38.9)	37 (23.4)	9 (50.0)	25 (22.9)	3 (10.3)	37 (23.7)
	그렇지 않다	99 (81.1)	22 (61.1)	121 (76.6)	9 (50.0)	84 (77.1)	26 (89.7)	119 (76.3)
계		122 (77.2)	36 (22.8)	158 (100.0)	18 (11.5)	109 (69.9)	29 (18.6)	156 (100.0)

a: $\chi^2 = 6.22, p < .05$ b: $\chi^2 = 9.78, p < .01$

혼자 살고 있는 독신들이 혹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전개됨에 따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가파른 이혼율 상승은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문항에 대하여 독신의 18.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57.5%가 되는 등 전체 독신의 3/4이 넘는 75.6%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60명 중 6명(3.8%)이었다. 이러한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부는 독신의 성별과 이전의 결혼 경험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6>). 독신여성의 경우(31.7%) 독신남성의 경우(16.7%)보다 높은 수치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chi^2 = 4.91, p < .05$), 또한 미혼의 경우(20.3%)보다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있는 독신의 75%가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어($\chi^2 = 18.04, p < .001$),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미혼보다 결혼의 상처가 있는 독신의 경우에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독신의 결혼관 (단위: %)

문항	구분	성별 ^a		계	결혼 여부 ^b		계
		남	여		미혼	사별·이혼	
결혼실패 두려움	그렇다	13 (16.7)	26 (31.7)	39 (24.4)	30 (20.3)	9 (75.0)	39 (24.4)
	그렇지 않다	65 (83.3)	56 (68.3)	121 (75.6)	118 (79.7)	3 (25.0)	121 (75.6)
계		78 (48.8)	82 (51.3)	160 (100.0)	148 (92.5)	12 (7.5)	160 (100.0)

a: $\chi^2 = 4.91, p < .05$ b: $\chi^2 = 18.04, p < .001$

한편, 혼자 사는 독신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았다.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0.7%,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가 59.1%로, 전체의 2/3가 넘는 69.8%의 독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독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표 7>),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한 경우가 27.3%에 불과하나,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47.7%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하였다($\chi^2 = 8.99, p < .05$).

이밖에, '결혼은 자기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결혼에 대

<표 7> 독신의 결혼관

빈도 (%)

문항	구분	소득 수준 ^a			계	문항	구분	성별 ^b		계	결혼 여부 ^c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만원 이상				남	여		미혼	사별·이혼	
배우자 기준 높음	그렇다	9 (27.3)	18 (22.5)	21 (47.7)	48 (30.6)	결혼 부정적	그렇다	4 (5.1)	14 (17.1)	18 (11.3)	14 (9.5)	4 (33.3)	18 (11.3)
	그렇지 않다	24 (72.7)	62 (77.5)	23 (52.3)	109 (69.4)		그렇지 않다	74 (94.9)	68 (82.9)	142 (88.8)	134 (90.5)	8 (66.7)	142 (88.8)
계		33 (21.0)	80 (51.0)	44 (28.0)	157 (100.0)	계		78 (48.8)	82 (51.3)	160 (100.0)	148 (92.5)	12 (7.5)	160 (100.0)

a: $\chi^2 = 8.99, p < .05$

b: $\chi^2 = 5.71, p < .05$

c: $\chi^2 = 6.37, p < .05$

한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독신의 18.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독신(88.7%)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11.2%만이 결혼이 자기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혼 개념은 독신의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표 7>). 즉, 독신여성(82.9%)에 비해 독신남성의 경우 94.9%가 결혼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다($x^2 = 5.71, p < .05$). 또한 흥미롭게도, 미혼의 경우(9.5%)보다는 사별이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경우(33.3%)가 결혼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x^2 = 6.37, p < .05$). 이는 결혼의 실패나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성장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신의 결혼관에 비쳐진 심리적 성향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크고, 이는 남성의 경우에서, 40대보다는 30대에서, 그리고 높은 학력의 소유자이며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경우에서 더 강한 성향을 나타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또한 없지 않으며, 40대 보다는 30대가 더 자녀양육에 자신감과 관심을 보이는 반면, 결혼계획이 없는 독신의 경우에는 무관심을 나타내었다.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지만, 독신여성의 경우,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나타내었다. 독신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대체로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소득이 높은 독신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자신이 결혼상대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결혼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고, 독신남성보다는 독신여성의 경우 그리고 미혼보다는 사별이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결혼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었다.

4) 독신의 행복도(Happiness)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신 생활에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지는 않은지, 불안감은 없는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독신 생활의 만족감을 묻는 '혼자 살아서 생활의 만족감이 크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4.4%,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5.6%로 독신의 40.0%가 혼자 사는 독신 생활을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가 혼자 사는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가량인 48.8%('매우 그렇다'가 11.3%, '그렇다'가 37.5%)가 독신의 외로움과 허전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51.3%('전혀 그렇지 않다'가 6.9%, '그렇지 않다' 44.4%)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독신 개인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혼자 사는 생활의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 한편으론 혼자 사는 독신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6%,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1%로서, 절반 이상인 58.7%가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재 독신으로 사는 주된 이유의 대부분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53.8%)'이거나 '학업이나 일에 몰두하여서(20.6%)'라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지금은 독신이나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는, 앞으로의 결혼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1.3%이고,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가 69.84%인데 반해, '반드시 한다'의 경우는 18.2%에 불과해 향후 결혼에 대해 조금해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 있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독신의 행복도(happiness)는 남녀 성별과 독신의 연령, 종교 유무, 또는 결혼계획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독신여성은 약 반수(48.8%)가 혼자 살아서 생활의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독신남성의 경우는 30.8%로, 여성이 남성보다 독신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나타내고 있다($x^2 = 5.40, p < .05$). 이는 남성(87.2%)보다 여성(50.0%)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은 욕구가 적고,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주의에 대한 반감과 여성의 지위력 향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0대 독신은 1/3정도(34.1%)가 혼자 사는 만족감을 지니는데 반해, 40대 독신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59.5%가 혼자 사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x^2 = 7.60, p < .01$),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만족감을 느끼는 독신이 더 많았다. 앞으로의 결혼계획에 있어서도 '전혀 없다'고 한 독신의 66.7%가 독신 생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반해,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의 경우는 40.5%,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다'고 응답한 독신은 단지 20.7%만이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x^2 = 9.86, p < .01$)(<표 8>).

혼자 사는 독신 생활의 외로움과 허전함에 대해서도 연령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30대 독신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3.7%가 외롭고 허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40대 독신의 경우에는 32.4%만이 독신 생활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하였다($x^2 = 5.13, p < .05$). 이러한 독신 생활의 외로움은 종교가 있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 57.0%가 외롭다고 하는데 반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강조하는 기독교(개신교·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은 36.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x^2 = 5.98, p < .05$). 따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표 8> 독신의 행복도

빈도 (%)

문항	구분	성별 ^a		계	연령 ^b		계	결혼 계획 ^c			계
		남	여		30대	40대		전혀 없다	있으면 한다	반드시 한다	
독신생활 만족감	그렇다	24 (30.8)	40 (48.8)	64 (40.0)	42 (34.1)	22 (59.5)	64 (40.0)	12 (66.7)	45 (40.5)	6 (20.7)	63 (39.9)
	그렇지 않다	54 (69.2)	42 (51.2)	96 (60.0)	81 (65.9)	15 (40.5)	96 (60.0)	6 (33.3)	66 (59.5)	23 (79.3)	96 (60.1)
계		78 (48.8)	82 (51.3)	160 (100.0)	123 (76.9)	37 (23.1)	160 (100.0)	18 (11.4)	111 (70.3)	29 (18.4)	158 (100.0)

a: $\chi^2= 5.40, p < .05$ b: $\chi^2= 7.60, p < .01$ c: $\chi^2= 9.86, p < .01$

겠다. 한편,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역시 독신 남성의 경우 1/2인 50.0%가 그렇다고 긍정하는 반면에, 독신 여성의 경우 32.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4.81, p < .05$).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독신여성보다 독신남성을 더 수용한다'는 사실에 과반수가 넘는 57.6%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혼자 사는 생활에 대한 불편함과 가정(家庭)을 이루며 살고 싶은 희망이 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9>).

결론적으로, 독신 생활의 행복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독신의 40~50%가 혼자 살아가서 생활의 만족감이 크지만,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기도 하며, 독신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독신여성의 경우, 30대보다는 40대의 경우에, 그리고 신앙이 있고 향후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 독신 생활의 만족감은 크며, 외롭고 허전함이나 불안감은 적게 나타났다.

5) 독신의 성(Sex)

혼자 사는 독신들의 '성(sex)'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性)에 대한 개방성과 적극성 및 결벽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성의 개방성(자유로움)을 묻는 '혼자 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3.4%이며,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0%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5.1%,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5%로, 독신의 3/4 이상(76.6%)이 혼자 산다고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충동의 해결에 적극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5.6%('매우 그렇다'는 1명/160명)이며, '그렇지 않다'가 61.9%,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3%로, 성(sex)에 대한 적극성에 있어서는 독신의 대부분(84.2%)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성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독신 10명 중 1명 꼴은 성에 대해 결벽증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독신들의 자유로운 성(性)에 대한 개념은 독신의 학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10>). 즉, 대학졸업자의 32.0%가 혼자 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응답하고 있어 고졸(16.7%)이나 대학원이상(8.2%)의 학력을 지닌 독신보다 비교적 섹스(sex)에 대해 개방적임을 나타냈다($\chi^2= 10.61, p < .01$). 이는 본 조사대상자 중 고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12명/160명), 특히 고졸이면서 성에 대해 자유롭다고 말한 경우는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원 이상의 높은 학력을 지닌 사람은 비교적 성(sex)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신 전체의 76.6%가 혼자 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또한 성적 충동의 해결에 있어서도 84.2%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독신들의 성(性) 개념이 혼자 산다고 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독신의 성(性)

<표 9> 독신의 행복도

빈도 (%)

문항	구분	연령 ^a		계	신앙여부 ^b		계	문항	구분	성별 ^c		계
		30대	40대		무교	기독교				남	여	
외롭고 허전함	그렇다	66 (53.7)	12 (32.4)	78 (48.8)	45 (57.0)	25 (36.8)	70 (47.6)	독신생활 지속 불안감	그렇다	39 (50.0)	27 (32.9)	66 (41.3)
	그렇지 않다	57 (46.3)	25 (67.6)	82 (51.3)	34 (43.0)	43 (63.2)	77 (52.4)		그렇지 않다	39 (50.0)	55 (67.1)	94 (58.8)
계		123 (76.9)	37 (23.1)	160 (100.0)	79 (53.7)	68 (46.3)	147 (100.0)	계		78 (48.8)	82 (51.3)	160 (100.0)

a: $\chi^2= 5.13, p < .05$ b: $\chi^2= 5.89, p < .05$ c: $\chi^2= 4.81, p < .05$

빈도 (%)

문항	구분	학력			계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성에 대한 자유로움	그렇다	2 (16.7)	31 (32.0)	4 (8.2)	37 (23.4)
	그렇지 않다	10 (83.3)	66 (68.0)	45 (91.8)	121 (76.6)
계		12 (7.6)	97 (61.4)	49 (31.0)	158 (100.0)

$\chi^2 = 10.61, p < .01$

V. 맺는 말

초라한 더블 대신 화려한 독신을 추구하겠다는 싱글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독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신'이라는 주제는 결혼이나 성(性)과 같이 비교적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에 비해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상태여서(카우프만, 2001)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신가구의 실태와 가정관리전략을 위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독신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독신의 자유로움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며 살아가는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 '독신'의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카렌 살만손(2001)은 "Even God is Single(나 싱글이다, 왜?)"에서 독신의 형태를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한편, 독신자 인터넷사이트 솔로베이(solobay.com)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신의 이유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결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의 '2030'의 경우 결혼 안하고 독립공간에 따로 살면서 아이도 안 낳고 '애인'으로 평생 사는 커플이 등장하기도 한다(조선일보, 2001. 9. 26).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 증가하고 있는 독신의 심리 성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0대·40대의 독신을 대상으로 독신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사회적·행동 특성, 결혼관, 행복도, 그리고 성(性) 등과 관련하여 독신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자기중심적이고 낙천적이며 사회적인 독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사실 중 하나는 혼자 사는 독신들이

비교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낙천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성인으로서 현재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개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현대 사회의 개인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 외, 2002).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도 낙천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즉 혼자 산다고 하여 감정의 조절 및 통제가 때때로 안되어 번덕스러움을 보인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나이 먹어간다는 사실에도 비교적 초연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자 살고 있지만 이성친구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독신이라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편견 어린 시선에도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등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긍정적이고 평범한 결혼관

대부분의 독신들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이 개인의 성장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자기 자신을 결혼상대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그다지 갖고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이상적이거나 높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관심과 욕구가 있고 자신감도 있다는 다분히 긍정적이고도 평범한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다.

3. 독신의 행복감은 반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독신 생활의 행복도 여부는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 혼자 사는 독신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경우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독신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 또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각기 40-60%에 달하고 있어, 독신의 행복감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체로 독신 생활을 잘 영위하느냐 마느냐의 판가름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영주·조희숙, 2001). 따라서 주변에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외롭다고 생각될 때 도움을 받도록 하며, 또한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친구, 취미생활, 문화적 활

동, 자선사업, 연애 등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김태현·이성희, 1996; 김애순, 2001).

4. 성(性)에 대한 소극적인 자유로움

혼자 사는 독신들이 아무래도 성에 대해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독신의 성에 대한 개념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혼자 산다고 하여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는 전체 1/4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성적 충동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부분 적극적이지가 않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한 40대 여성의 경우에도 성적인 면에 자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성적 자극이 되는 영화나 비디오는 가능한 보지 않으려고 하며, 그러다 보면 성적 욕구 또한 감소된다고 하였다. 인터뷰한 40대 남자의 경우 역시 때때로 자위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적 문란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과 사이버섹스가 가능한 현실을 생각할 때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독신의 형태를 하나의 선택적인 삶의 양식으로 볼 때, 혼자 사는 독신의 '자유'의 실체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주소를 아는 일은 필요하다. 막연히 독신자들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결혼의 대안적 생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신의 생활 양식을 옳게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독신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 접수 일 : 2002년 9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6일

【참 고 문 헌】

고영주·조희숙(2001). 독립을 꿈꾸는 여성을 위한 혼자살기 가이드. 서울: 청어.
 굿데이(2002). 화려한 싱글 "봄날"은 오나. 2002년 3월 10일. <http://news.hot.co.kr/2002/03/10/200203101127384311.shtml>.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고려원미디어.
 김애순(2001). 독신, 그 멋과 매력. 서울: 보람문화.
 김태현·이성희(1996).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김태현·전길양·김양호(2002). 사회변화와 결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정은·최연실(2002).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3), 137-153.
 장 클로드 카우프만 지음, 성귀수 옮김(2001). 혼자 사는 여자, 백마 탄 왕자: 독신 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학세계사.

조선일보(2001). '애인'으로 평생 사는 커플 등장. 2001년 9월 25일, 21면.
 서일호(2002). 하리수와 싱글족. 주간조선, 통권 1686호, 10.
 서일호(2002). "나홀로가 좋다" 싱글가구 200만 돌파. 주간조선, 통권 1686호, 70-76.
 중앙일보(2001). 이혼 늘고 고학력 독신 급증... 나홀로 가구 222만명. 2001년 10년 17일, 25면
 카렌 살만슨 글, 전지운 옮김(2001). 나 싱글이다, 왜? 서울: 디자인하우스.
 한국경제(2002). 결혼 하루평균 877쌍...이혼 370쌍... 2001 혼인·이혼 통계. 2002년 3월 21일. 17면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